



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의 주력 수출품목은 장차 새로운 주력 수출품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의 부상과 추적이 우리에게서 공포스럽고 어찌면 우리 경제의 파멸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내세웠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의 종합 경쟁력은 중국이 한국을 앞서게 된다. 반도체산업 메모리 분야의 경우도 중국은 2010년 즈음이면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고, 한국에는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고 쓴 것이다. 또한 “중국근로자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놀랄 정도이다. 원래 계획보다 빨리 거의 모든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 임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선은 단순한 장치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것은 염세주의자의 자세일 뿐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무섭게 도전해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해버린 것이다.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세계 최대 인구의 시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우리 바로 곁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중국특수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장치산업 이외에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략) 문제는 우리가 원천기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라고 쓴 구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도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고, 원천기술에도 점점 더 접근해가고 있다. 즉, 원천기술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때에도 우리 기업들은 ‘잘 나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국산화가 빠르게 이뤄져가고 있으며, 각종 핵심 칩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왜 외면하는 것일까?

이 책 둘째 장의 제목은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 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한 감성적인 판단이라고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공장들이 모두 ‘해외로 해외로’ 이전하

고 있다는 데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퍼센트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기간이 벌써 3년에 가깝다. 이렇게 높은 실적을 이렇게 장기간 지속한 것은 1960년대나 1970년대에도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1980년대 중반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때는 소위 ‘3저 호황’이라 불리는 특수한 호경기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참고로 1990년대에는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공병호에게 물어보자.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을까? 수출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아니다. 모두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이다. 산업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산업시설을 끊임없이 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의 5천 달러 또는 1만 달러 시대를 누볐던 산업들은 이제 도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런 산업의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여 돈을 좀 더 벌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세계적으로도, ‘산업 공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나라들은 번영했고, 저지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경제난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시설을 해외로 이전해야 새로운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과거의 산업시설까지 끌고 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시설에 필요한 인력은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 이상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심각한 논리적 오류와 감성적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공 소장은 ‘여는 글’에서 “까닭 없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낙담과 좌절감이 소리 없이 퍼져가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한 “살아남고 싶으면 현실을 직시하라”고도 썼다. 그런데 그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을 말하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공병호 소장이 재단하여 제공하는 현실을 말할 따름이다. 객관적인 현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